

## 2008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ship를 마치며...

원광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김 정 우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여 동안 미국 최고의 surgeon들의 수술과 경험들을 배우러 부푼 꿈을 안고 유재철선생님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헐리우드 거리가 훤히 보이는 르네상스 호텔에 머물면서 헐리우드거리를 구경하면서 여독을 풀었다. 처음으로 방문한 병원이 LA 시내에 있는 Kaiser Permanente LA medical center에서 근무하는 Dr. Michael Pearl로 이분에 발표한 Arthroscopic release of shoulder internal rotation contractures secondary to birth palsy 논문에서 internal rotation contracture가 있는 환아에 대해 Arthroscopy를 이용한 release는 external rotation뿐만 아니라 elevation까지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개방적 술식에 비해 관절경을 이용한 술식의 잇점으로는 제일 먼저 미용상 좋고, 개방적 술식에서 다른 근육의 유리에 따른 손상을 적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처음 접하는 환자에 대한 관절경적 수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9월 3일에는 Santa Barbara에 있는 Four seasons The Biltmore resort에서 열리는 ASES closing meeting에 참가하여 행사 전날 welcome reception에서 많은 유명한 surgeon들과 정보를 교환하였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오전에는 발표와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운동도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6일에는 다시 LA로 이동하여 Sheraton Hotel에 짐을 풀고 Irvine으로 이동하여 오주환, 박종혁선생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국시민처럼 보여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났다. 오주환 선생님은 T.Q Lee Lab에서 연구하고 계셨고, 박종혁선생님도 LA에 있는 Lab에서 열심히 적응을 하고 있어 기분이 좋았다.

9월 8일에는 Kerlan Jobe clinic을 방문하여 Dr. Tibone를 아침에 7시에 만나서 clinic에 있는 Arthrex Lab이 있어 cadeva를 이용한 신제품인 Switch Lock을 이용한 rotator cuff repair를 경험해 볼 수 있었고,

Dr. Yocum의 shoulder arthroscopic surgery를 구경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Dr. Tibone집에 초대되어 california beach가 바로 앞에 있는 집에서 사모님이 해주신 steak를 먹으며 해변을 보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다음날은 운 좋게도 Dr. Frank Jobe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오후에는 TQ Lee, PhD Lab에 들러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Biomechanic study에 대해 TQ. Lee선생님한테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Lab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Brazilian restrant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Texas Dallas에 있는 Carrell clinic을 방문하여 Dr. Burkhead와 Dr. Krishnan을 만날 수 있었다. 방문 첫날은 외래 방문을 하여 하루 60~70명을 방 5개를 이용하면서 환자를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저녁에는 fellow 2명과 PA 2명 그리고 Dr. Burkhead와 Dr. Krishnan과 함께 Mexican restrant에서 식사를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다음날은 Dr. Krishnan이 Carrell clinic에서 아침 7시부터 Op room 2개를 사용하면서 shoulder disease가 있는 환자 9case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후 2시 이전에 끝낼 수 있었으며, 수술을 너무 빨리 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으며 PA와의 호흡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았다.

Dr. Krishnan은 현재 새로 개발한 arthroscopic transosseous technique를 이용한 rotator cuff repair을 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임상적 시험을 진행 중이었으며, 사진 촬영은 하지 못하게 하였다.

수술 수기도 굉장히 쉬웠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는 것처럼 보였다. 오후에는 Dr. Burkhead의 수술을 Baylor Hospital에서 볼 수 있었는데, 수술 case는 instability 수술을 3차례에 걸쳐서 시행하면서 axillary nerve injury가 발생을 하여 Latissimus dorsi를 rotational transfer를 5시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였다. 결과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였으나 Dr. Burkhead는 처음으로 하는

## American traveling fellowship 2008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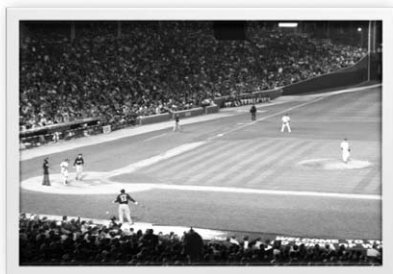
수술이라서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어, 한국에 돌아와 micro병원에 계시는 김상수 원장님께 결과가 어떠한지 물어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 보니 Latissimus dorsi rotational flap보다는 free flap이 결과가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보고 난후 Dr. Burkhead의 fellow로 있는 Dr. Burzzle의 집에 초대되어 직접 steak를 구워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9월 14일은 Cicago O' Hare공항에 도착하여 cicago의 명물인 Pizno's pizza house에서 pen pizza를 먹을 수 있었고, 아름다운 cicago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을 방문하여 Dr. Romeo의 다양한 수술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인상이 깊었던 수술로는 Total shoulder arthroplasty를 하는데 arthroscopy를 이용하여 humeral head를 excision하고 capsular release한 다음 mini-open하여 arthroplasty를 시행하는 수술을 볼 수 있었으나 저희가 볼 때는 하다가 잘 안되어 바로 open arthroplasty로 conversion해서 아쉬움을 남았으며, Dr. Romeo는 3case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하였다. Dr. Romeo는 수술도 굉장히 잘하지만, 연구에 있어서도 6주에 15편정도의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해서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날은 RUSH OAK hospital에서 Arthroscopic shoulder surgery를 보았는데 Dr. Romeo는 모든 환자에서 biceps에 대해서 subpec tenodesis를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Dr. Romeo가 우리와 이용걸교수님과 의 인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며, 너무 좋아 하신다고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다. 오후에는 유재철선생님의 모교인 North Western University를 방문하여 campus를 구경할 수 있었고, 저녁에는 cicago cups구장인 wigly field에서 cups와 Milwarke Bruerce와의 경기를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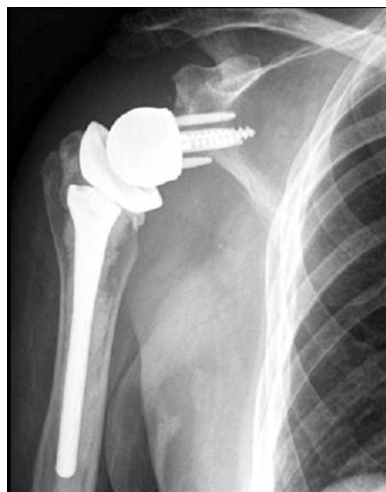




다음날인 9월 17일에는 Cicago O' Hare공항을 출발하여 florida tempa공항에 도착하니 Dr. Frankle의 비서인 친절한 Mindy가 마중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발이 돼주었으며, 저녁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는 Dr. Frankle의 집에 초대되어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Florida Orthopaedic Institute에서 Dr. Frankle과 Dr. Mighell의 다양한 Arthroscopic surgery 및 instability가 있는 환자에서 Latajet's op를 볼 수 있었고, Dr. Frankle의 Reverse arthroplasty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Dr. Frankle은 1년에 400cases정도를 시행한다고 하며, implant는 공동으로 고안한 DJD의 Anchor란 implant는 glenoid의 base plate가 동양인에 맞게 작고 고정력이 아주 강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기구의 장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Tonier사의 RTA보다 fixation력이 굉장히 높았고, FOI에 있는 Biomechanical Lab에서는 RTA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논문들이 JBJS등의 Journal에 발표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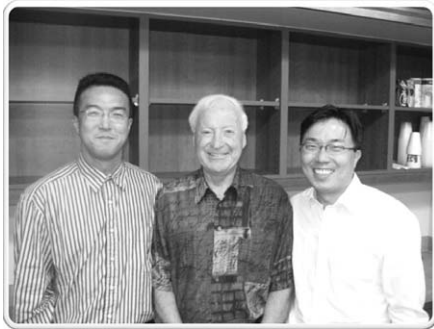


다음날은 Tempa General Hospital에서 Dr. Frankle의 arthroplasty를 하루에 9개 정도를 시행하는 것과 직접 scrub를 하면서 Anchor란 기구를 직접 보고 stability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Dr. Mighell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야구 이야기와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절하게도 바로 다음날 Tempa Rays의 경기를 볼 수 있었으며, 일요일에는 1시간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주 아름다

## American traveling fellowship 2008 보고

은 Private골프장에서 Dr. Mighell과 유재철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아주 아름다운 tempa의 추억을 뒤로 하고 10시간을 운전하고 새벽 1시경에야 우리의 목적지인 SC Spartanburg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6시 30분에 Steadman and Hawkins clinic에서 Dr. Hawkins가 주관하는 아침 conference에 참가하여 Dr. Hawkins의 instability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며, conference가 끝나고 논문에 대한 meeting에서 어떤식으로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가 오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으며, 인적 물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함을 알 수 있었다.

첫날은 Spartanburg에서 Dr. Hawkins의 외래를 참관하고 진료가 끝난 후에는 Dr. Hawkins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Fellow들과의 월례 meeting을 Greenville에서 하면서 우리가 있어서 인지 그날 meeting에서는 이용결교수님과 박진영교수님의 논문을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날은 Steadman and Hawkins Clinic이 Spartanburg에서 Greenville로 옮기는데 그곳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Dr. Hawkins의 fellow를 따라 새로운 병원의 시설 및 수술실 그리고 Smith and Nephew Lab등을 자세히 구경할 수 있었고, 오후에는 Dr. Hawkins의 집이 있는 골프장에 직접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fellow들도 자유스럽게 Dr. Hawkins의 집이 있는 골프장에서 자유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전통적으로 마지막 홀에서 Dr. Hawkins의 집으로 샷을 해서 집 앞 마당에 떨어뜨리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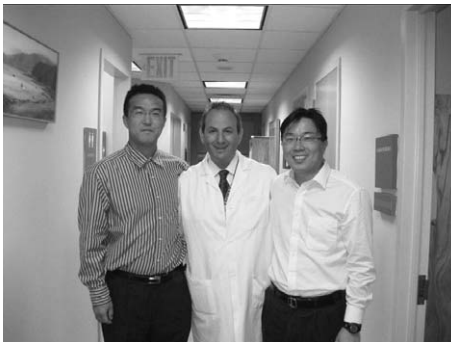
좋은 추억을 뒤로 하고 다음날인 9월 24일 NC의 Charlotte공항에서 Boston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Boston에 있는 호텔은 Charles river 바로 옆에 있어 아름다운 도시전경과Charles river는 너무 잘 어울렸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조깅을 하면서 아름다운 Boston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다음날 우리는 MGH에서 Dr. Higgins를 만나 오전만 수술을 참관 하였는데 deformity가 있는 Glenohumeral arthritis가 있는 환자에서 modular Zimmer stem를 사용하고 있었고 subscapularis를 tenotomy하는 것보다는 LT를 osteotomy시행하여 다시 reattach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다고 하였다. Dr. Higgins의 수술 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 프로그램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되어있어서 정말 부러웠다.

다음날 Dr. JP Warner의 수술을 참관하려고 하였으나 수술이 없어서 볼 수가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Boston의 명물인 MIT와 Harvard를 방문하여 세계 제일의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볼 수 있었고, Harvard 내에 한국식당이 있어서 오랜만에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며, 거의 한 달이 다되어 가는데 처음으로 주말에 유재철 선생님과 함께 쇼핑을 즐기면서 보낼 수 있었다.



9월 27일에는 Boston에서 Rent car를 타고 New York의 42번가에 있는 Hyatt Hotel에 있으면서 뉴욕의 밤거리와 Broadway를 구경할 수 있었다. 다음날 Columbia University에 있는 Dr. Levine이 있는 Columbia presbyterian eastside 62번가에 있는 외래에서 Dr. Levine의 외래를 참관할 수 있었고, 저녁에는 Columbia에 Dr. Bigliani과 Dr. Levine의 fellow선생님과 spine part의 한국인 staff로 이번에 오신 김영은 선생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며, 유재철선생님과 미국에서는 마지막 밤을 재미있게 지냈다.

다음날 Columbia University의 Dr. Bigliani의 배려로 유재철 선생님과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준비해간 slide를 발표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의 한 달간의 생활이 우리가 방문했던 많은 병원에서 너무 친절한 배려와 가르침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한 달간의 travelling fellow를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광진총장님을 비롯한 전임회장님이신 박태수교수님 및 이광원회장님 과 박진영총무님및 많은 선배 견주관절 회원님들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